



“평생 어렵게 모은 돈, 더 어려운 이들 위해 쓰였으면”

102세 주관섭 할아버지 부부의 값진 나눔
전 재산 2000만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서귀포시 동홍동에 거주하는 주관섭(사진 가운데·102)·백영순(사진 왼쪽·82) 부부의 값진 나눔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8일 오후 서귀포시청을 찾은 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성금 2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에 지정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주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혼자 남은 할머니 뒤편으로 남겨뒀다는 1000만원을 뺀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 3500만원이던 부부는 지난 3월에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00만원, 동홍 10동 노인회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주 할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으로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동홍주공3단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고령의 할아버지는 청력이 떨어지고,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는 거의 누워서 생활하지만 성금을 기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설명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당을 하루루 쓰지 않고 모아뒀다. 지금껏 주변 이웃과 국가의 도움으로 잘 살아왔는데,



주관섭 할아버지와 백영순 할머니가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주변을 도움을 줄 수 있어 이제 여한이 없다”고 했다.

백 할머니도 “돌아서 TV를 보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는 걸 들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 집으로 묵묵봉사를러 오는 이에 게 물어봤다”고 했다. 할머니는 “웃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며 생활비를 아껴 썼다. 하지만 좋은 일에 쓰게 돼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랑 마주앉아서 서로 행복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윤경 시장은 “어렵게 모은 돈을 더 어려운 이를 위해 선행 내놓겠다는 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존경을 표한다”며 “어르신 의 깊은 마음이 우리사회에서 잘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축협 양문석·강유미씨 ‘새농민상’



양문석 강유미

서귀포시축협 조합원 양문석(59)·강유미(57) 부부가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지난 1980년대 중반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축산업을 시작해 신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돼지 3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영농기술 전파 등으로 제주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지역 감귤농가와 연계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양돈 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실용화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들 부부는 새농민 회원으로서 앞으로 선진영농기술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옹기장 고달순 보유자 별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옹기장 고달순 보유자(사진·불대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87.

고인은 1960년대부터 가마에 불을 때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강신원 불대장(작고)과 함께 1년에 한차례 씩 큰불을 때왔다. 그릇을 보면서 불때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이 탁월해 지난해 8월 보유자로 인정됐다. 제주도는 고달순 보유자에 대해 “70년간 제주옹기 제작에 종사하며 옹기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제주도옹기장은 질대장(흙을 선별하고 고르는 기능), 도공장(기물을 성형하는 기능), 불대장(불을 때어 굽는 기능), 굴대장(가마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분해 전승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질대장 이윤옥, 도공장 부창래, 굴대장 김정근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빈소는 부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4월 10일.

싱켄하우스 어려운 이웃에 후원물품



남동영농조합법인 싱켄하우스(대표 현성웅)는 지난 6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해 달라며 1800만원 상당의 안심육포 1500개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현성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육포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정

영평초 운영위원회의 참석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0일 영평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리는 ‘영평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참석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9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리는 ‘제1차 특별자치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김덕홍 조천읍장 7일 관내 순찰을 실시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을 철거하고 관계자에게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제주롯데면세점 신광초에 위생키트 전달



신광초등학교(교장 강병희)는 8일 1사 1교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롯데면세점(법인장 김주남)과 신학기 위생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신학기 위생키트는 어린이 마스크, 어린이 손소독제, 물티슈, 칫솔세트를 비롯해 각종 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기부받은 위생키트는 유치원 원아 100명과 1학년 학생 109명에게 원격 수업 실시 안내문과 함께 가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대신중 업무협약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일 지역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대신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교과수업 외 시간의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허운 주지스님 의료진에 감귤 전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지난 7일 관음사 대불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귤(600만원 상당의 블러드오렌지) 1000kg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적십자사를 통해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됐다. 허운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감귤을 전달



하게 됐다”며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보은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 위한 교원 온라인 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8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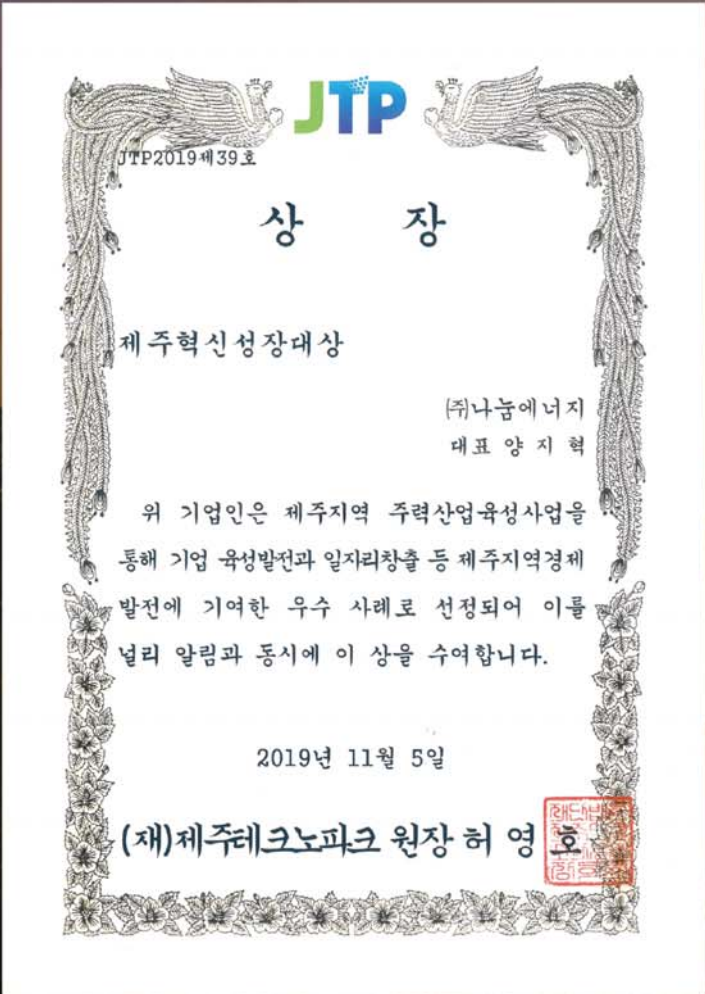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농협·고향주부모임 마스크 기부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과 한경농협고향주부모임(회장 박영자)은 지난 7일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구에 갑천(천연 감물천) 마스크 600매 세트를 제작해 전달했다. 김 조합장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농촌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